

학교 환경 위생

정 문 식*

I. 서 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까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 때에는 거의 해마다 닥쳐오는 춘궁기에 굶어죽는 아이들이 허다하였고 겨울에 신발을 못신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입는 옷이라든지 먹는 음식도 극히 나빴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학교의 시설이나 위생상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지금은 상수도의 보급률이 높아졌으나 그것도 당시 지하수의 오염이 거의 없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수세식 변소의 보급율이 높아진 것을 평가할만하나, 당시는 학급당 학생정원을 철저히 지켜서 과밀학급은 생각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한 비위생적이거나 비교육적인 학교환경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오늘날 경제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는데도 학교환경의 향상은 거의 없거나 과밀로 인한 악화를 초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민 특히 위정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각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은 오늘 이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 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은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같이 지내며, 연령이 낮고,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낮아 그 전파가 용이하고, 전 지역사회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학생

들에게 질병이 전파되었을 경우는 전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으며 반대로 그들은 학교에 모여있으므로 지역사회 주민에 비하여 질병의 감시나 관리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용이한 점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연령이 낮고 습관이나 가치관의 형성기에 있으므로 좋은 환경의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면 학교를 미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연히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학교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 중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학교내에서의 잘못된 교육여건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의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1989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 총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학생수만도 총 1,142만명으로 전 인구의 약 27%나 되며, 前記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에 약 20만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의 과학기술처, 국방부, 기타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의 부설 교육기관 학생까지 합하면 전 국민의 3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 1참조)

따라서 훌륭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좋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교육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 전 분야가 다 잘 되어 갈 때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 이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표 1 > 1989년도 문교부 산하 학생현황

구 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8,354	414,532	18,511
국 민 학 교	6,335	4,868,520	136,800
중 학 교	2,474	2,275,751	89,719
일반계고등학교	1,096	1,473,155	58,074
실업계고등학교	587	810,651	34,609
특 수 학 교	104	19,971	2,757
공 민 학 교	1	150	4
고등공민학교	11	393	62
기 술 학 교	1	24	2
고등기술학교	28	24,224	801
각종학교(중)	7	5,082	147
각종학교(고)	31	38,313	1,286
전 문 대 학	117	323,825	7,382
교 육 대 학	11	15,960	694
대 학 (교)	107	1,040,166	33,340
대 학 원	298	86,991	-
각종학교(대)	23	23,947	504
총 계	19,585	11,421,575	384,692
인 구	-	42,380,176	-
학 생 비 (%)	-	26.95	-

* "1990년도 문교통계연보" 발췌

너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발표자의 능력 밖으로 생각되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 혹은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주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II. 학교 환경 위생의 체계

학교의 환경이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태도와 습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환경을 취급하는 체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먼저, 발표자 생각으로는 학교환경의 담당자는 재직하고 있는 양호선생님이 되고, 양호선생님이 안계시는 학교에서는 그의 보전담당 선생님이 학교환경을 담당하도록 하여 그 책임한계를 확실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담당선생님은 해당 학교내에 위생문제가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찰 내지 조사를 하여야 하며 혹시 타선생님이 위생문제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환경담당 선생님께 통보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환경담당 선생님은 필요시 즉시 행정체계를 통하여 학교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그 해결책을 건의한다. 해결은 학교책임자, 담임선생님 혹은 교내 전문선생님, 때로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때 환경담당 선생님은 문제의 발생에서부터 실시한 해결방법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필히 보관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III. 학교 환경 위생의 내용

학교환경위생의 내용은 해당학교가 있는 위치에 따라 전혀 상이하므로 일괄하여 말하기는 극히 어렵다.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도시학교와 그 시설이 없는 시골학교가 그렇고 수세식 변소의 유무에 따른 학교환경문제의 상이성도 마찬가지로 판이하다. 그의 많은 환경문제가 학교마다 달리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분야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이들 문제 또한 정확한 조사연구에 의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극히 단편적인 조사나 사건 혹은 관찰에 의한 문제점들이다.

1) 음료수

학교에서 공급되는 음료수는 도시상수도과 지하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정수장에서, 음용이 가능하도록 정수과정을 거친 물로서 그대로 음용하여도 된다. 단, 학교에 상수를 저장하는 별도의 물탱크를 둘 때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하며, 노후한 상수관에 의한 오염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도시상수의 수도전(水道栓)에서 받은 물의 음용가부는 축정어 비교적 쉬운 '오르소 - 토리딘 검사'(ortho - tolidine test)로 알 수 있다.

지하수의 경우, 우리나라 지하수의 대부분이 음용수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필히 정기적인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음용가능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이화학적 오염이 심하지 않거나 미심쩍을 때는 필히 1분 이상 끓여서 사용하거나 별도의 정수과정을 거친 물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음용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은 하루 한 학생당 2ℓ면 충분하며, 학교에 수도전을 설치할 때, 미국에서는 학생 100명까지는 50명당 1개씩, 그 이상일 때는 100명당 1개씩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변소

도시 일부 학교에는 수세식 변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외 대부분의 학교에는 아직 재래식 변소가 그대로 있다. 재래식 저장탱크형 변소일 경우 비위생적인 상태가 생기기 쉬운데 특히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주위의 불결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필요할 때, 그리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필히 하여야 한다. 대소변의 수거는 학생들이 없을때 하고 주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거 후에는 특히 변기 주위와 오염가능지역을 청소한다. 변소에는 환기시설을 하고, 쥐, 파리, 모기 등의 동물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름에는 저장조에 끈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변기와 그 주위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토록 한다.

< 표 2 > 한국과 미국의 변소수 기준

학 생	구분	한 국	미 국
남 학생	대변	학급당* 1개이상. 단, 국민학교는 15개 이상	100명당 1개
	소변	학급당 2개 이상	30명당 1개
여 학생	공통	학급당 2개 이상	8학년 이하 35명당1개 9-12학년 45명당 1개

* 한국 1학급당 학생수 50명 이하 기준

도시학교에는 수세식 변소를, 그리고 농어촌에

는 부폐조에 연결된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며, 남학생용 변소의 경우 소변용 시설을 별도로 가설하며, 모든 화장실에는 손씻는 시설과 비누 및 손닦는 시설도 한다.

저학년 학생에게는 양변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길 교육하여 용변 후에는 꼭 비누를 발라서 손을 씻은 후 닦고 나오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수세식 변소가 안되어 있는 학교에도 몇개의 양변기를 구입하여 어린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양변기만을 사용하는 일부 도시 학생들에게는 재래식 변소의 사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변소수 기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3) 조명

학교에서의 조명은 학생들의 시력손상과 학업성취 저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 사고가 잘 생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학교 대부분은 야간 학교를 제외하고는 조명을日光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남향 건물을 선호하여 동일교실 안이라도 남쪽 창가의 칠판과 안쪽 칠판의 조명은 큰 차이가 나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시력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일기(눈, 비가 올 때와 맑을 때)와 계절(여름과 겨울) 및 시각(아침, 낮, 저녁), 교실의 위치(방향, 층수, 주위 구조물) 등에 의하여 조명이 달라진다.

< 표 3 > 한국과 미국의 학교의 적정 조명

장 소	조 명(Lu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국 - 교실 - 체육장 	150 체육교육에 지장이 없는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 - 층계, 복도, 출입구, 화장실 - 오락실, 체육관, 실내수영장 - 강당 - 교실, 독서실 - 실험실(특정 위치) - 작업실(정밀작업, 제도, 바느질 등의 위치) 	100 200 100 300 300(500) 300(1,000)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낮이라도 인공조명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실 안 조명 기준 150 Lux는 너무 낮은 것 같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의 위치별 적정조명은 표 3과 같다.

전 공간에 균일한 조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천정 전면에 일정 간격으로 조명장치를 설치한 후 우유빛 유리로 덮는다. 실내 어느 부위에서도 직사광선을 피하고, 거울반사광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반사계수는 30~40%, 천정은 85%, 벽은 60% 이상, 바닥은 30~40%가 되도록 한다. 초록색 (Green)과 푸른색 (Blue)은 침착과 안정감을 주고 노란색 (Yellow)과 오렌지색 (Orange)은 온화 및 명랑감을 주므로 조명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순수한 흰색은 다른 이상적인 색이 가미된 것보다 눈을 더 피로하게 한다.

자연조명을 할 때는 전 공간이 비교적 고르고 충분한 조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 어느 부분에도 직사광선이 들어와서는 안되고 창은 학생의 왼편에 있도록 한다. 창문은 교실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고, 교실 안쪽까지 충분한 조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은 높은 것이 좋은데, 보통 바닥에서 120cm 높이에서 천정 밑 15cm까지 하는 것이 좋다. 교실 뒷면 창문은 교사가 들어오는 빛과 마주치게 되므로 좋지 않으며, 좋은 조명을 위하여 벽은 깨끗해야 하며, 천정 높이는 3.9m를 권장하고 있으며, 교실폭은 7m 이하라야 한다.

4) 소음

지나친 소음은 학생과 교사에게 흥분, 정신 및 정서적 긴장, 정신집중방해와 비능률 등을 초래한다.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소음의 발생원을 살펴보면 교실 안의 경우 학급당 과다학생수에 의한 것이고, 교실 밖의 경우 근처 도로, 철도, 공항 등의 교통수단과 산업, 상업 및 공공시설 등에 의한 것이다.

대도시의 한 학급당 학생수가 기준치 50명 이하를 크게 초과하는 학교가 많고, 교실 뒷편에 앉은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 교실 안의 소음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화가 불가능한 소음도

를 보면 표 4와 같다.

< 표 4 > 대화 방해 소음 단위 : dB

대화자간의 거리(m)	정상대화	고성대화
3	60	78
6	54	72
12	48	66

즉, 6m 거리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교실내 소음은 54dB 이상이며, 이 값은 미국의 학교 교실안 소음기준인 35~40dB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교지역 소음의 환경기준인 50dB도 초과하고 있다.

교실 안 소음을 낮추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며, 학급당 학생기준 50명 이하도 더 줄여야 하리라고 본다. 그 다음은 외부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실건물을 건설해야 하며, 교실내부도 울림이 없도록 흡음, 내장시설을 해야 한다. 차단시설에 의한 소음감소율은 대체로 차단물질의 밀도 (Density)에 비례하여 낮아지므로, 학교주위에 나무를 심는 것은 효과가 적고, 판자보다는 블록벽이 더 우수하다.

교실 밖의 소음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문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상일국교에서 107dB, 명일국교에서 101dB, 여의도고교에서 100dB 등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값은 우리나라의 학교지역 소음기준 50dB 및 65dB(도로변 학교부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학교부지의 소음기준은 70dB이다.

학교의 보건담당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교실 안과 벽, 그리고 운동장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줌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의 건강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정도의 소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 시정토록 하며 정상적인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안다. 특히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주위 소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건물을 지을 때도 소음 대책에 만

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 근처에 고속도로 등 대형 소음 발생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다음 건설하여야 한다.

5) 환기·난방

쾌적한 교실내 환경을 유지하여 주기에는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너무 좁고, 교실당 학생수는 너무 많다. 한국의 66㎡당 50명의 기준은 1명당 1.3㎡밖에 안되는 넓이인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학생 1명당 2㎡ 이상에, 한교실당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겨울철 알미늄 창문의 교실 안쪽의 공기는 쉽게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이런 불쾌감은 전에는 탄산가스에 의한 증독으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몸이나 신발에서 나는 습도, 냄새, 온도, 먼지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겨울 철에 교실바닥, 옷, 칠판 등에서 나는 먼지와 냄새도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래식 나무창틀의 교실에서는 자연환기가 가능하나, 현대식 알미늄 창틀의 교실에서는 자연환기는 불가능하고 키크문을 열거나 기계장치에 의한 환기가 필요하다. 적정 환기량은 학생 1인당 1분에 약 600ℓ이다. 자연환기는 창문 및 천정환기통을 이용할 수 있고, 인공환기는 환풍기와 공기청정기(Air Conditioner)등을 들 수 있으나 후자는 학교에 가설하여 가동시키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교실청소를 하면 냄새와 불쾌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실온도는 20°C가 적정온도인데 우리나라는 학교 난방시기도 너무 늦게 시작하여 너무 일찍 중단하며, 외부기온도 너무 낮은 온도에 난방을 하여 연료의 절약은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추운환경에서의 작업(학업)의 비능률은 적정온도 유지시 추가 연료비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수준에 걸맞게 실내온도에 맞춰 난방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을 피울 때 연기가 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난로식 난방은 피하고 중앙난방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난방시 습도는 40~60%의 적정선에서 크게 부족되므로 가슴에 신경을 써야하며, 보통 한 교실 당 하루 8~12ℓ의 물을

증발시켜야 적정습도가 유지된다. 학생들에게 기온과 습도의 감각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잘 보이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교실벽에 부착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부지

학교부지는 다음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한다.

- (1) 가파른 언덕이나 경사면은 좋지않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
- (2) 현존 건물과 장차 확장을 위하여 충분한 면적으로,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에서 건물의 지상 최하위 면적의 2.5배 이상으로 규정
- (3) 철도, 고속도로, 공장 등 소음, 악취, 먼지, 매연가스 배출업소 등과 상당거리 떨어진 곳
- (4) 배수가 쉽고 휴식시설 설치에 적합한 곳
- (5) 안전, 소화, 환기 등에 지장이 없는 곳
- (6) 폐기물 매립지 위나 근처는 피할 것

7) 안전

어리고 질재력이 없는 다수의 학생이 좁은 공간에 있게 되므로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 안다. 학교에서 안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 신축자재는 가급적 비연소성일 것
- (2) 복도나 건물 입구의 문은 밖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일 것
- (3) 층계는 1층부터 최상층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폭은 최소한 1.5 m, 한계단의 높이는 15~18 cm, 가로는 25~30 cm가 적당하다.
- (4) 층계 손잡이는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것
- (5) 청소시 창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6) 못이나 유사물질이 튀어나와 있지 않을 것
- (7) 유리, 바위, 나무가지, 판자 등이 운동장에 없을 것
- (8) 운동시설 혹은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
- (9) 학교주위의 축대나 벽의 붕괴에 의한 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10) 학교건물의 붕괴·추락 등의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할 것
- (11) 학교안 우물이나 웅덩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12) 교실에 연료를 피울 때 화재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13) 더운물 운반시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 (14) 학교내에 쓰레기가 장시간 쌓여있지 않게 할 것
- (15) 쓰레기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것
- (16)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소화나 대피 훈련을 시킬 것
- (17)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에서의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8) 학교밖 환경

학교 밖의 환경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각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구청장이나 교육장에게 그들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장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학교보건법 제5조에 명시하여 두고 상기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화구역의 관리방법을 기술하고 동 시행령 제4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를 두고 정화구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

서까지도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금지한 행위나 시설이 비일비재함을 볼 수 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이 법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방지 또는 철거조치할 것을 요청하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문교부에서 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정비대상 633개소 중 101개소(16%)만 정비한 부진한 실적을 감안하여, 금년 8월 한달동안 다시 정화구역내 유해업소를 조사하여 당해기관에 일괄하여 정화요청하거나 학교보건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하겠다고 한다.

9) 환경위생교육

앞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시설을 해주었다고 해서, 학교에서의 완벽한 환경위생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곳에서 생활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행동을 충실히 이행해 주었을 때 성취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위생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이 때 배운 위생교육을 습관화하여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까지도 계속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교육담당자는 양호선생님이나 다른 환경위생담당선생님, 교장선생님, 특정 전문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피교육자는 선생님(교장, 교간선생님 포함), 학생 등이 될 수 있다.

교육방법은 양호선생님이 각 반별로 가서 강의를 하든지, 교장선생님이 아침조회 때, 전교생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이 술선수담하는 방법 등 모든 가능한 교육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은 주위 지역사회에 영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과 협조에 힘쓸 것이며 한편으로는 학교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협조를 그들로부터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시내 한 국민학교에서 그학교 교감선생님이 아침 등교시 항상 일찍 나오셔서 운동장에서 종이를 줍고 청소하시는 것을 본 학생들이

자기들 교감선생님을 청소만하는 분으로 간주해 버리고,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다고 하지만, 선생님의 솔선수범은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운동장, 학교주위, 교실 등의 청소는 교육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여겨진다.

한편, 일부 도시학생들이 집에서 가지고 간 보리차만 마실 수 있고, 학교수도물은 마실 수 없는 물로만 생각해서, 응급시에 음용불가능한 우물물을 마시는 것을 방지토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학생에 대한 양변기 사용법, 도시 학생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 사용법, 식탁에서의 태도, 용변 후 혹은 식사전에 손씻는 습관 등은 좋은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IV. 결 론

발표자가 기억할 수 있는 지난 50년 동안의 우리사회의 경제수준은 발표자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발달하였다. 춘궁기의 아사자(餓死者)나, 겨울철에 학생들이 신발 없이 학교에 가는 것을 지금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50년 전에는 국민학교에도 입학시험을 거쳐서 들어갔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각급학교에서의 교육환경은 그 때와 비교하여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최근에는 과밀 학급이 많아져서 교육환경이 더 나빠진 감도 없지 않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모든 지도자는 바로 오늘의 학생들로부터 나오므로 나라가 잘 되고 못됨은 오직 그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우리나라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진대,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도 주위의 주택에는 상수도가 들어가나, 학교에는 음용불가 판정이 난 우물만 있고, 인근 아파트에는 중앙난방 시설이 되어 항상 따뜻한 실내온도가 유지되나,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교실의 난로에 불을 피우느라 온 학교주위가 연기 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나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분야를 셋으로 요약하면서 본 발표를 마칠까 한다.

첫째, 과감한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특히, 도시 과밀학급을 두르는 교실내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안됨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다. 먼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 50명도 40명, 더 나아가 선진국 수준인 30명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조명, 난방, 환기, 음용수, 변소 등 학교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학교 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학교안이나 밖에서의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선생님이 감시 발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담당선생님께 통보하며, 원인 규명과 해결방법의 모색 및 실행에도 담당선생님이 직접할 수도 있으나 다른 선생님이나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보고체계와 기록보관 방법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경계밖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불법시설이나 행위가 일어났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미약한데 이를 높혀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환경위생 개선과,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위생습관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위생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교실, 복도, 운동장 등의 청소를 시키고, 휴지를 못버리게 하므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더러운 곳을 보면 청소를 하고 휴지, 쓰레기 등을 버리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사용법, 식탁에서의 태도, 목욕탕 사용법 및 기타 공공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하여 문화시민으로써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문교부·중앙교육평가원 : 문교통계연보,

- pp. 30~31, 1990.
2. 문교법전편찬회 : 문교법전, 서울, 교학사, pp. 1510~1515, 2080~2084, 1988.
 3. 환경처 : 환경보전, pp. 290~302, 1988.
 4. 정문식 : 학교보건·환경,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권, 제1호, pp. 20~22, 1983.
 5. 환경처 :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p. 14, 1990.
 6. 김상욱 : 학교보건 관계법령 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권, 제1호. pp. 62~91, 1988.
 7. Ben Freedman : Sanitarian's Handbook. 4th ed. Peerless Publishing Co., USA, pp. 1110~1136, 1974.